

투데이 칼럼

구급대원 폭행의 제도적 장치 마련

잇 올만 하면 마스크에 등장하는 게 매 맞는 구급대원의 이야기이다. 응급환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할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게 우리의 직무이고 존재 이유인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이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음주후 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률이있지만 행위에 비해 실제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징벌적 처벌로는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이는 보도매체나 일반인들에 대한 각소방서의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노출빈도를 높임으로 인하여 사



전명미
고청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회전반적으로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급기시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취자들의 구급대원 폭행행위는 사후에 한번쯤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웨어러블캠이나 구급차내의 CCTV로도 상황을 증명할뿐 보호받고 있지는 않다.

대민관계에서 대면 접촉을 유지하는 현장 구급대원의 특성상 구급차 또는 보호자와의 의견마찰이나 구급서비스 제공시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응급자의 신고시각부터·지령시간·현장

까지의 도착·환자의 최초 환자 상태 및 평가·현장처치행위,이동시의 도로 장애과정과 구급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교신 시간,내용 까지도 분부차원에서의 녹취 및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이송되는 구급차에서 제공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의료기관의 응급센터나 경찰의 치안센터에서도 발생한다.

경찰에서의 체포 구급시 미란다 원칙 고지 처럼 응급상황 발생시 구

급대원에게 현재의 상황설명과 무력사용시의 처벌에 관련한 법에 대해 간결하게 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한다.

이는 주취폭력자의 재범이나 폭력행위를 사전 억제하는 순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구급상황에서의 법률적 분쟁 발생시 현재 각지역 소방본부의 변호사 자격 특례를 늘림과 동시에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양이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의 완비하여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수 있게 하는 제도가 생기기를 기대해본다.

이는 소설가 김훈이 이야기하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를 보고 “국가가능이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작동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마치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책임있는 구급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조그마한 바람을 되새겨 본다.

독자제언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빈집털이 예방하자

무더운 여름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의 많은 시기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8월 '빈집털이' 절도는 평소보다 2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빈집털이를 예방하자.

첫째,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쉬운 방법은 바로 문단속을 철저히하는 것이다.

창문이 열려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외출하는 경우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잠겨 있는지 2~3번 확인해야겠다.

또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둘째, 빈집임을 타내지 말자. 오랜 시간 집을 비울 경우 우편물, 신문, 광고지, 우유가 쌓이게 된다. 이 경우 빈집털이범들에게 가장 먼

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미리 연락하여 배달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두고, 신문, 우유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변에 부탁하여 빈집임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셋째,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전기기를 이용해보자.

라디오, 티비를 켜놓아 마치 집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예약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가 계속 울리지 않게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거나·초인종 소리만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인터폰을 꺼 놓는 것도 필수이다.

끝으로 집안의 귀중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철 전북청 경찰관리기동대 3제대 순경

독자제언

청소년 전과자 줄이는 '선도심사위원회'

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범죄)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집단의 통제력 약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의 부족과 환경적 요인이 범죄 유발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모 고등학교 학생은 길거리에서 받치되어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타고 갔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도처에 받치되어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 충동범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실물도 마찬가지이다. 길거나 pc방 등에 놓여 있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생각 없이 습득하여 갔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단지 호기심으로 해봤을 뿐인데 라고 해도 변명이 되지못하고 전과자만 될 뿐인 것이다.

현편의 실수가 소외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행 청소년과의 접촉으로 연결되면서 비행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도심사 위원회는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등으로 나누어져 지역사회의 장학사나 변호사 및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벌보다는 선도에 힘쓰고 동시에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를 이용한 어두운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기동대 순경

사설

농생명 산업에 중장기 대규모 계획 있어야

농생명 산업의 중장기 대규모 계획이 있어야겠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전북도가 농업분야와 관광 분야와 탄소분야 등 3대 핵심 과제를 말한 지도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 이 세 분야는 어느 게 달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을 물어온다면 아무래도 농업 쪽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인데다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농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삼락농정 방침이 그 대표적이다. 전북도가 말하는 삼락농정이란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전북도는 오래전에 1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55개 신규 사업도 발굴해 거역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락농정을 펼치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농가 소득은 별로라는 보도이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려면 농생명 산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많은 이들의 입에서 중장기 대규모 계획을 세우려는 말이 나오고 있음은 그래서이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전북도가 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번 밝혔던 까닭이 크다. 도지사도 때때마다 그것을 거듭 밝혔던 것이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둬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의 미래 비전을 밝혀야 한다. 전일 정부 때 삼락농정에 대해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해도 진차 중요한 팩트이다. 삼락농정의 성공은 도내 농민들이 평가할 일이지 정부가 판단해줄 일은 아니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의 비전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늘 살아서 팔팔해야 한다. 앞으로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농가에 실익되는 쪽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농생명산업의 중장기 대규모 계획으로 그래야 한다.

전북도의 일자리 대상 수상에 말한다

전북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대상상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에서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이낙연 총리로부터 대상 깃발을 받아들고 파안대소하며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분이 좀 묘하다. 이낙연 총리 이하 단상의 모든 이들이 박수를 쳐주었음에도 그게 좀 그렇다. 깃발을 수여한 이가 다른 이도 아니고 이낙연 총리이고 수상자가 다른 이도 아니고 송하진 도지사이기 때문이다.

전북 경제는 군산조선소 폐쇄 때문에 고민이 심하다.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일자리 대상 수상이 축하할 일임에도 섣뜻 축하할 수가 없다. 도내에 실직자들을 포함해 미취업자가 여전히 많은 것은 우울한 일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일자리 창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자문해야 한다. 일자리를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미취업자들 상당수는 싸늘한 반응이다. 전북도는 미취업자들이 무슨 까닭으로 공감하지 않는 것인지 헤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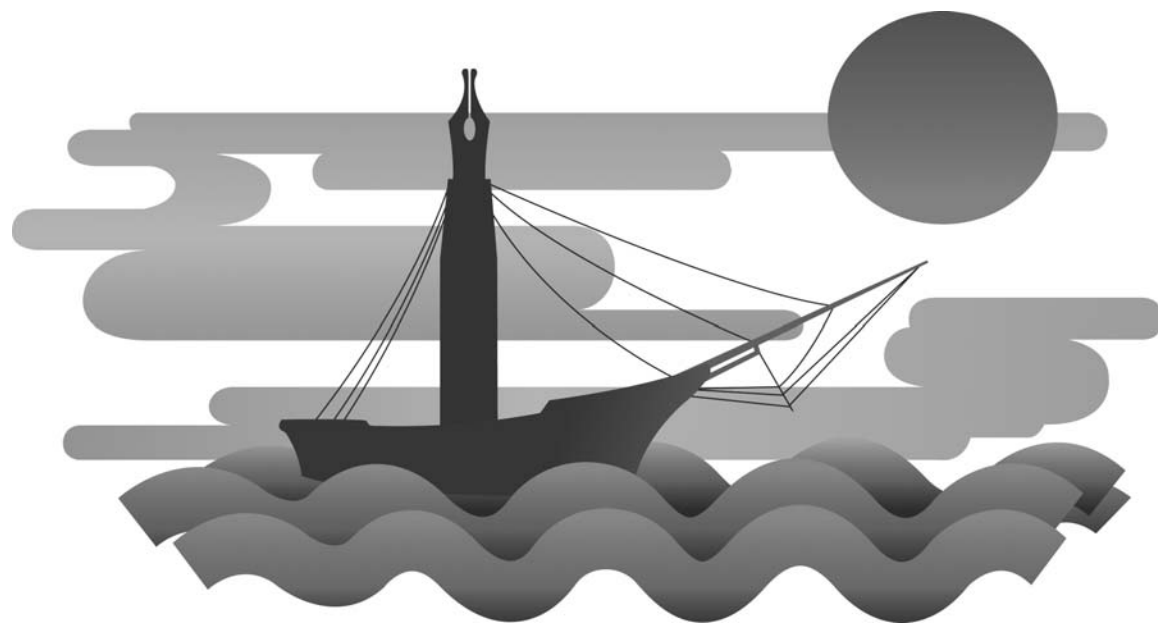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들은

미취업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 말이다. 그래도 배가 불렀느니 어찌느니 하면서 미취업자들의 심사를 흠여서는 안 된다. 미취업자들의 그같은 반응은 당연하다. 기간제 같은 일자리로는 아무래도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일자리로는 살림 살이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도내 젊은이들의 결혼 비율이 낮다. 또 그런 까닭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약속했던만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취직을 미루고 있는 이들이 많은 이유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다면 젊은이들의 입장이 나아졌을 터이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서 부풀리는 식의 홍보는 바르지 않다. 보고가 정직했다면 오늘날 어찌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겠는가.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